

5분 거리 가는데 39분 기다리라니...



광주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광주에 사는 지체장애 1급 박모(72)씨는 병원 한 번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한다. 병원 이동시 꼭 필요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구급차를 부를 때도 있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말에 진료는 못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약만 겨우 타다 먹는다.

박씨는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아플 때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들이 광주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평균 39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분 거리에 있는 목적지를 가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면 39분을 대기해야 한다. 이용자는 많지만 장애인콜택시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31일 현재 단일 기준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한 뒤 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평균 대기시간은 39분03초다.

이는 서울 25분57초보다 13분06초 늦은 시간이다. 평균 대기시간이 가장 길었던 달(11월)은 4월로 1시간08분36초였다. 반면 가장 짧았던 달은 1월로 24

72대 운행...갈수록 이용 늘어 1시간 넘게 대기하다 취소도 서울 대기 시간 25분과 대조

시, 이달말까지 8대 추가 도입 장애인들은 “더 늘려 주오”

분30초였다. 장애인들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있지만 그 수가 적어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72대(임차택시 12대 제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적용하면 1만5176명의 1·2급 장애인이 거주하는 광주엔 80대가 운행돼야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이보다 8대가 적다.

시는 이달 말까지 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법정보유대수보다 더 많은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는 ▲2010년 6만1932건 ▲2011년 8만3260건 ▲2012년 11만2480건 ▲2013년 23만 214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기본요금 660원·150m 30원)이 일반 택시요금의 23% 수준으로 저렴한 탓이다.

각 구청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날이나 날씨가 궂은 날, 장애인단체 행사가 있는 날 등엔 1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라는 게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한 뒤 기다림에 지쳐 탑승을 취소하는 취소율도 15%(하루 평균 접수건수 1195건→탑승건수 101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마저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목(52) 상임대표는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도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법정 보유대수 80대는 무의미한 수치”라며 “장애인콜택시 증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눈치 보여서...” 민간 피해 경찰 ‘손실보상제’ 유명무실

시행 8개월 광주·전남 7건 불과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시·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된 ‘손실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아예 모르거나 자주 이용할 경우 주변의 굽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개정된 경찰직무집행법 시행 이후 이날 현재까지 손실보상제도 접수 건수는 모두 7건이다.

이중 3건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에서 통과, 767만 원이 보상액으로 지급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피의자를 쫓던 중 피의자의 렌트카 앞 유리를 파손한 건에 대해 심의, 손실보상금 36만3000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4건은 기각 또는 재심의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다 됐는데도,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손실보상 제도를 자주 이용할 경우 상관과 주변 동료의 굽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을 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경찰관들조차 ‘손실보상제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홍보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또 수백 만 원에 달하는 큰 보상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과 보상만 믿고 과감한 수사를 진행했다가 자칫 기각을 당할 경우 사비로 해결해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광주경찰 형사과 직원 A씨는 “대부분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 모를 뿐더러, 설명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이용이 할 수 있겠느냐”며 “소액이라면 차라리 사비로 부담하는 게 낫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이익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 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 제도는 현관문 수리비·차량 파손 등 ‘재물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가거도에 보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4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상악화로 고립된 신안 가거도 주민과 관광객 560명을 위한 겨울용 의복·담요·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있다. 주민·관광객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고립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4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상악화로 고립된 신안 가거도 주민과 관광객 560명을 위한 겨울용 의복·담요·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있다. 주민·관광객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고립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교육재정 악화...교부금 인상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법률 개정 촉구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데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

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킨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국고의 세입이 줄어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해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대법 “광주 북구청 처분 적법”

광주 북구청의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마트가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상젤리제 코리아라는 업체가 매곡동에 대형 할인점을 짓겠다며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연형뉴스

大雪 앞둔 광주·전남 많은 눈 속 강추위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7일)을 전후해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등 동장군(冬將軍)이 기세를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오전·오후 한때 눈(눈상적설량 3~8cm)이 내리겠다고 4일 예보했다.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하 1도, 낮최고기온은 1도~4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4도~5도 가량 낮은 기온이다.

이런 맹추위는 휴일인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인 6일 예상적설량은 2~7cm.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도~2도 가량 더 떨어진 영하 1도~영하 5도. 대설인 7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으며 지역에 따라 최대 7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런 추위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 시간대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음주운전 말리는 부인에 손찌검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말다툼 끝에 손찌검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4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3일 밤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동구 A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선배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내(42)가 저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

○이씨는 때마침 매장 앞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운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